

중국, 일본 태양전지 시장 진출

2월 말부터 가정용 발전장치 공급 ... 단결정형으로 차별화

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자랑하는 중국의 Suntech Power가 일본의 태양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해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Suntech Power는 가정용 태양열 발전장치를 일본시장에 본격 공급기로 결정하고 2월25일부터 판매 대리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Suntech Power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제도를 잇달아 정비하는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진출을 결정하고 판매 대리점을 모집해 2009년 이내에 100개 정도의 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의 가정용 태양전지 시장에는 해외 메이저들이 진출해 Sharp와 Kyocera 등 로컬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며 Suntech Power의 참여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Suntech Power는 중국 Jisngsu 소재 공장에서 개인주택의 지붕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전지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주류인 다결정 실리콘형 대신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발전효율이 높은 단결정 실리콘형 태양전지를 판매할 예정이다.

Suntech Power는 2001년 설립된 신홍 태양전지 생산기업으로 유럽 수출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07년에는 발전능력 32만7000kW에 달하는 태양전지를 생산해 세계 3위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및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태양열 발전의 도입을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1kW당 7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도쿄(Tokyo)에서는 4월부터 1kW당 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9>